진흥회 활동

제3회 신산업 발전 민·관 협력회의

본회는 지난 7월 8일 대한상의 회의실에서 최근 우리 가전산업이 선진각국들의 수입규제와 기술이전 기피, 후발개도국의 저가공세와 공장입지, 환율, 금리 등 생산요소들의 원가부담 가중으로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전산업에 대한 수출진흥, 기술개발 마인드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신산업 발전 민·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에서 LG전자 구자홍 대표이사 등 4명, 공학계에서는 박규태 연세대교수 등 3명, 디자인학계에서는 KIST 권은숙교수, 무역업계에서는 필립스전자 신박제 대표이사 등 2명, 정부에서는 통상부 서사현 생활공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쟁국 르뽀로 산업연구원 박성택실장이 일본의 가전산업을 고려대 곽상경교수의 한국의 가전산업을 기업분석보고로 중앙대 전용욱교수의 가전3사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한 한국가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열띤 토론이 열렸다.

전자산업 하반기 13.8% 성장 전망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의 35%를 차지했던 우리 전자산업이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 성장률 29.6% 보다 둔화된 18.3%의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산업의 수요구조가 수출중심의 상태(생산대 수출비율 68.4%)에서 수출이 작년 상반기의 37.5% 증가에서 금년 상반기에는 그 절반이하 수준인 14.5%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금년 상반기에 전자산업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요인은 '80년대 말 이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는 데다 그 동안의 엔고가 엔저로 전환되면서 일본과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한층 더 불리해졌고 전자 전체수출의 50%를 차지하던 반도체가 국제가격의 급락으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구 분		'95상반기(실적)		'96상반기(추정)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공급	생산(10억원)	22,069	29.6	26,109	18.3
	수입(백만불)	11,971	43.3	13,416	12.1
수요	수출(백만불)	18,946	37.5	21,698	14.5
	시판(10억원)	4,970	12.7	5,666	14.0

한편 국내 생산판매(시판)는 작년 상반기 증가율 12.7% 보다 다소 높은 14.0%증가, 이는

가전제품의 1.3%, 반도체의 3.2%, 전자부품의 7.3%라는 저조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등 산업용기기가 37.9%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된다.

또한 수입은 작년 상반기 증가율 43.3% 보다 크게 낮은 12.1% 증가에 그쳤다. 이는 수출저조로 생산재 수입이 그만큼 둔화 것으로 판단된다.

올 하반기 전자산업은 수요측면에서 수출이 지난 4월 이후 저조세가 지속되어 10.2% 증가에 머무를 전망이므로 생산도 상반기의 18.3% 성장보다 낮은 13.8%가 성장할 것으로 조사결과 예측됐다.

이처럼 하반기의 성장률이 상반기보다 낮은 것은 수출 저조현상이 상반기 중의 2/4분기 즉 4월 이후부터 나타난데 기인한 것이므로 하반기 수출이 지난 2/4분기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고 그때보다 성장률이 더 상승할 요인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번에 문제가 된 반도체가 국내외 업체의 감산 노력 등으로 어느정도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반도체 이외의 전자제품 수출은 상반기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이외의 전자제품 수출은 상반기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 전자업계는 하반기에도 정보통신, 반도체, 멀티미디어, LCD 등 핵심부품 중심으로 개발 및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구 분	'96상반기(추정)		'96하반기(전망)	
	금 액	증감율	금 액	증감율
수출(백만불)	21,698	14.5	27,159	10.2
시판(10억원)	5,666	14.0	6.345	19.7
생산(10억원)	26,109	18.3	30.780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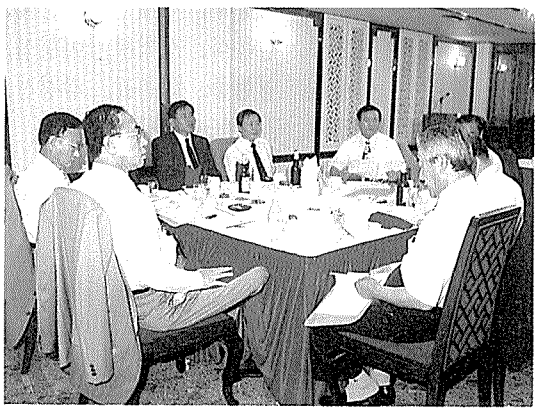
그러나 달러화에 대한 엔저가 지속되고 국제교역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고비용 생산구조의 개선이나 획기적인 기술개발 등 우리 경쟁력의 강화가 단기간에 완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국내 생산판매(시판)는 가전제품의 한계보급, 전자부품의 셋트 수요감퇴 등으로 가전과 부품의 저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정보통신분야는 디지털 위성방송, CDMA 이동 무선전화 등 신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과 인터넷 이용 증대 등 정보화 사회가 확산되어 전자 수요증대를 선도하고 있어 상반기보다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 퇴직자모임 「전자동우회」 발족

본회는 지난 7월 5일 광동성에서 본회에 재직했던 분들을 모시고 「전자동우회」를 발족시켰다.

지난 76년 전자수출조합을 모태로 출범한 본회는 그동안 퇴직한 사람이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설립된지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동안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95년에는 수출이 440억불에 이르러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35%를 차지하는 국내 제1의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세계 4대 생산국으로 급성장 하였다.

물론 이러한 성장은 우리 전자산업인들의 노고의 결과이지만 이들의 직간접적인 기여도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번에 발족한 전자동우회는 현직에서 완전히 퇴역한 사람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관련분야에서 계속 인연을 맺고 있다. 초대회장을 지낸 김완희 박사는 현재 미국에서 국제평가기술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남계영 초대 상근부회장은 서울 삼성동에서 특허법률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한규완 전부회장은 전기공업진흥회 상근부회장으로 이홍부 전상무는 전자부품연구소에서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동우회는 이번 모임을 통해 서로의 우의와 협력을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외에도 한평생 몸담아 온 전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청지기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회 장 : 남계영
- ○ 부회장 : 최광정/한규완/김현태
- ○ 감 사 : 민근홍
- ○ 운영위원 : 심장섭, 이홍부, 박재권, 임순억, 현호증, 김돈식, 정청황, 이항섭, 이용칠, 임현종, 최종필, 김경진, 조경제, 구자풍, 박준구, 남중인
- ○ 사무국장 : 김염, 이상숙
- ○ 연회비 : 회장(10만원), 부회장(8만원), 운영위원(5만원), 회원(3만원)

무궁화 위성과 멀티미디어산업 설명회

본회는 지난 6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무궁화위성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통신 위성사업본부 안웅섭 과장이 설명했는데, 무궁화 위성사업의 개요 무궁화 위성 기술적 특성, 위성서비스 모형,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 관련 내용에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한편 한국통신의 무궁화 사업은 우주개발을 위한 기술기반 확보와 관련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난시청지역 해소, 국제가용 주파수 자원을 선점하고 국위를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위성 통신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위성통신 방송 서비스 제공 위성기술개발 및 지역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위성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위성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계시장은 98년경 약 200~3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향후 국내시장도 연평균 67% 이상의 고속신장, 2000년경에는 약 2조원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PC기판 분과위원회 발족

본회는 지난 6월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PC기판 관련업체 회의를 갖고 석정전자·태일정밀·한솔전자·성원정보기술 등 20여 기판업체들이 PC

의 경쟁력 강화와 PC기판산업의 육성을 위해 PC기판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들 업체는 기판 분과위원회를 통해 대만·싱가포르 등 경쟁국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한편 핵심 기술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판 수급업체간의 협력사업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기판제조산업에는 현재 약60~7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데다 기판의 경우 PC제조원가의 30% 이상을 차지, PC산업 경쟁력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으나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기술 및 가격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말 현재 주기판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82.7% 증가한 4천1백41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그래픽카드 등 PC의 성능향상을 위한 「애드온 카드」의 수입규모는 약 2억8천만 달러, 전년동기 대비 14.1%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컴퓨터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회의

본회 컴퓨터산업 협의회는 지난 6월 28일 팔레스호텔에서 삼보컴퓨터 정기정 전무 등 10여명이 참석, 최근의 컴퓨터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활성화 방안을 협의키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컴퓨터산업 동향이 생산에서 전년대비 27.1% 증가한 23,656억원, 수출이 전년대비 26.8% 증가한 1,898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앞으로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신규 수출시장 확대에 우선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CPU, Chi-pset의 관세영세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조사를 통한 중장기 수출산업화 방안을 강구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 한·미 컴퓨터산업 협력포럼 개최, 정부구매제도 개선, 외국기업과 제휴사업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나아가기로 했다.

진흥회 6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6. 3	특별소비세 인하 추진을 위한 업계회의	가 전 과
6. 4	폐가전 공동사업 관련 회의	환 경 과
6. 4	가전제품 부품표준화·공용화 회의	가 전 과
6. 4	전자부품 표준화 회의	부 품 과
6.12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표준화 회의	부 품 과
6.12	컴퓨터 특허협의회	정보산업과
6.12	오디오업계 임원 간담회	가 전 과
6.18	오디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6.18	이동전화 기기 고유번호 변경방지 제도개선 회의	산업전자과
6.20	VCR용 부품표준화 회의	부 품 과
6.21	폐가전 처리 공동사업 관련 부사장단 조찬 간담회	환 경 과
6.24	CDMA관련 특허회의	정보산업과
6.26	전자부품 수출입 개선 간담회	부 품 과
6.27	무궁화위성과 멀티미디어산업 설명회	산업전자과
6.27	한국진출 정보통신업계 임원 간담회	정보산업과
6.28	컴퓨터 산업협의회 회의	정보산업과